

추경예산 '3467억' 편성

당초보다 10.2% ↑...시의회 승인 요청

대구시는 올해 첫 추경예산 3467억원(일반회계 2063억원, 특별회계 1404억원)을 편성해 지난 25일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번 추경예산으로 대구시의 올해 총 예산은 3조7345억원(일반회계 2조4741억원, 특별회계 1조2604억원)으로 당초보다 10.2% 증가한 규모이다.

추경예산 중 일반회계의 주요 사업은 경제살리기 251억원, 도로건설 575억원, 복지 434억원, 교통 739억원 등이다.

경제살리기 사업은 신용보증기금 출연 100억원과 2단계 지역산업진흥 33억원, 재래시장 활성화 37억원, 공공근로 12억원 등이다.

또 도로건설 사업은 팔공로~봉무단지 250억원, 팔공로~공항교 240억원, 강창교 확장 50억원 등이며, 복지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83억원, 노인보건 의료센터 건립 48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40억원 등이다.

교통 사업은 시내버스업체 재정 지원 145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

198억원, 지하철건설본부와 지하철공사 전출금 183억원, 범안로 유료도로 재정지원 35억원 등이다.

이밖에 특별회계는 도시철도 432억원, 하수도 240억원, 광역교통시설 143억원, 상수도 45억원 등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사업 등 당면현안사업의 재정수요를 반영했으며 정부로부터 추가 또는 감액되는 국비 및 지방교부세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조현배기자 jhb@